

공립 유치원 입학 '처음학교로'에서 신청

전북도교육청, 유아모집·선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내달 1일 서비스 시작

전북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유치원 유아모집·선발을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 정보를 검색하여 입학을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별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 지원 시스템이다. 내달 1일 학부모 서비스를 시작으로 우선 모집을 실시한 후 일반 모집의 절차를 거쳐 유아를 선별한다.

'처음학교로'는 공립유치원과 희망하는 시립유치원이 활용할 수 있고 학부모 중 공립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반드시 이 시스템을 통해 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곤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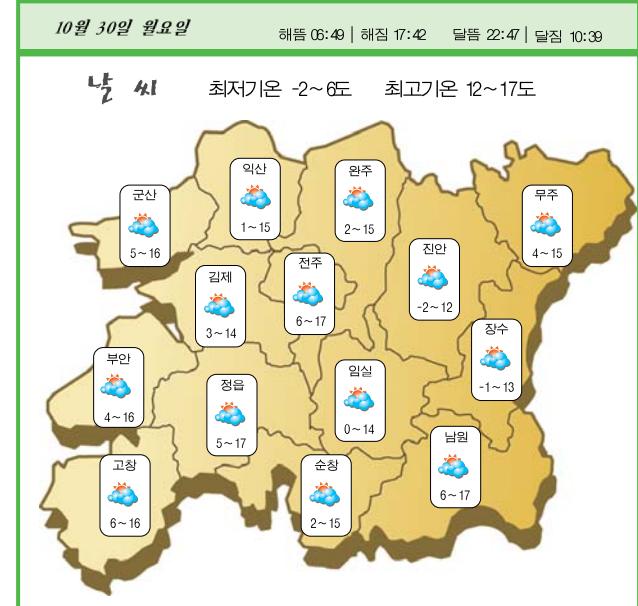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선발을 할 수 있고 학부모가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접수부터 등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원 입학에 따른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국화 감상하는 꼬마 시민과 사진찍는 엄마
모습을 엄마가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

제14회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익산시 어양동 중앙체육공원에서 지난 27일 개막했다. 이날 축제장을 찾은 한 어린이가 국화를 감상하는



전북대 학생들, 건강기능식품 학회 '최우수상'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 학생들이 최근 국제건강기능식품과학회가 주최하는 제10회 국제건강기능식품학술대회 'Science Slam Award'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대회는 군산전번선판에서 세계 32개국 건강 및 가능성 식품 분야 전문가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초점으로 토론 등 다양한 학술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차세대 젊은 브레인들이 능·생명 식품분야의 참신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Science Slam Award 가 함께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Ravichandran Vijaya Abinaya 정나눔, 양유경, 우하영 학생 팀(지도교수 차연수)은 'Brain Wars and Power Foods'를 주제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뇌 질환을 식품을 통해 관리하고 그 중 '조식점'이라는 식품으로 등불실험을 통해 실제 뇌 질환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식품이라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전북대 LINC+사업단은 학생들에게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화분야인 농식품 산업에서 실버사회를 대비하여 천연물 유래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해은기자

TBN전주교통방송
교통사고 유자녀 돋기 콘서트 개최

TBN전주교통방송은 30일 오후 6시30분 전북도청 야외 특설무대에서 2017 교통사고 유자녀 돋기 가을 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 27일 전주교통방송에 따르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기금 마련 공개방송을 마련했다.

콘서트에는 가수 공일오거와 이용, 강은철 신계행 월미연, 한승기 등이 참여해 뜻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방송을 통해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사를 통해 전액 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콘서트 실황은 오는 11월 5일 오후 11시 전주교통방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낭만이 있는 곳에 통해 녹음 방송된다.

/정해은기자

전래놀이, 학교생활·수업 활용 나서

전북전래놀이교사연구모임, 워크숍 갖고 전래놀이 전파

전북지역 초등교사들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전래놀이 워크숍을 갖고 학교 생활과 수업 활용에 나서고 있다.

전북전래놀이교사연구모임 회장 이은영 청원초교 교사)은 다음달 4일 전주 신동초교 강당에서 교과서 속 전래놀이 워크숍'을 갖는다.

교사 40여명과 함께 갖는 이번 워크숍에선 전놀이, 고누놀이, 페트병 자치기 등 전래놀이를 배우는 시간이 이어진다.

전놀이는 대표적인 전래놀이 중 하나로 아이들이 두 페로 걸어서 진을 치고 상대편 진을 점령하는 놀이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고 아이들이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이 된다.

고누놀이는 종이, 나무판 위에 밀밭을 그려놓고 하는 놀이다.

교사연구모임은 일반 자치기가 위험 할 수 있어 페트병 자치기로 대체했다.

전북전래놀이교사연구모임은 지난 2001년 전래놀이 30시간 직무연수를 계기로 결성됐다.

어렸을 적에 맘껏 뛰놀았던 전래놀이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워 교사들이 나서서 아이들에게 놀이 전수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전래놀이 모임을 이어 왔다.

전래놀이를 직접 하고 놀며 몸으로 느꼈고 놀이를 아이들에게 지도할 때의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

이후 매년 3~4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전래놀이마당을 가졌었고 지난 해부터는 희망 교사들을 모집, 2년째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첫해는 신청자 1백여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배운 전래놀이는 체육시간, 천의적 체험활동, 쉬는 시간 등에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은영 회장은 "학년말에 끝날 즈음 가장 기억에 남는 걸 전래놀이로 끊는 아이들이 많을 만큼 좋아한다. 앞으로 이를 삶속에 전래놀이가 이어지기 위해 계속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전주시, 가을철 산불 발생 제로화 앞장

내달 1일부터~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전주시가 가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가을철 전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등 입산자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가을철 산불방지제로화를 목표로 관망이 잘 되는 산

정상에 감시원 25명을 배치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이동감시원 15명과 진화대원 70명 등 총 116명을 거점 배치하는 등 가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형 산불예방을 위해 인접 시·군과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임차헬기(3대)와 산림청헬기(4대)를 지원 요청하는 등 신속한 진화활동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김민근기자

삼례농업협동조합



신나라! 땀 흘린 농업인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여는

꿈을 키우는 틀

피어나라! 새로운 미래

농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꿈을 키우는 틀

힘나라! 생활의 모든 순간

누구나, 어디서나 스마트한 금융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틀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시군지부

■전주농업협동조합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용진농업협동조합 ■소양농업협동조합 ■상관농업협동조합 ■구이농업협동조합 ■이서농업협동조합
■삼례농업협동조합 ■봉동농업협동조합 ■고산농업협동조합 ■화산농업협동조합 ■윤주농업협동조합 ■전주김제완주축산농업협동조합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